

# 한-미 양국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 산업부 - 미 에너지부, 「한-미 청정에너지 포럼」 공동 개최
-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청정에너지 투자, 전력 그리드, 청정수소 분야 협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미국 에너지부는 6.25.(화) 미국 워싱턴 D.C. 메리어트 마퀴스 호텔에서 「한-미 청정에너지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작년 4월 양국 정상 간 합의한 청정전력 확대 및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 협력의 일환으로, 양국 정부, 기업, 학계, 연구계 80여 명이 참여하였다.

주제별 세션에서는 ❶첨단 배터리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❷청정전력 확대를 위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❸청정에너지 투자·파이낸싱, ❹신뢰 가능하고 회복 탄력성이 높으며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시스템을 위한 전력망 혁신, ❺이동성, 공급망, 인증 등을 포함한 청정수소 기술의 상용화 및 보급을 다루었고, 각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기회와 도전 과제에 대해 정부 관계자와 산학연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안덕근 장관은 축사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한국의 에너지 분야 대미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가운데, 금번 포럼이 양국의 청정에너지 협력 잠재력을 극대화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한-미 청정에너지 포럼을 토대로 양국이 장관급 에너지 정책 대화를 이어 나가는 등 에너지 협력을 공고히 하여 당면한 에너지 안보 및 기후 위기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이경수 (044-203-5120)
	에너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시원 (044-203-5131)

## 참고1

## 한-미 청정에너지 포럼 개요

### 1. 개요

- (일시/장소) 6.25(화) 09:30~17:00, 메리어트 마퀴스, Washington, DC
-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美 에너지부
- (주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 (참석)
  - (우리측) 장관, 에너지정책실장,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무역보험공사 사장, SK E&S 사장, LS 전선 상무 등 50여명
  - (미국측) 부장관, 국제관계 차관보, 전력실 차관보, GE 그리드 솔루션 최고기술책임자, Exxonmobil 저탄소솔루션 임원 등 30여명
- (주요내용) ①배터리, ②에너지저장, ③청정에너지 투자, ④전력 그리드, ⑤청정 수소 분야에서 양국 협력 기회 및 도전 과제 논의

### 2. 세부 일정

※ 한-영 동시통역

시간	주요내용
09:30~09:40	개회사
	축사
	사진 촬영
09:40~10:50	Session 1 : 배터리
11:10~12:20	Session 2 : 에너지 저장
12:30~13:10	오찬
13:10~13:50	Session 3 : 청정에너지 투자
14:00~15:20	Session 4 : 전력 그리드
15:40~16:50	Session 5 : 청정 수소
16:50~17:00	폐회사

The U.S.-ROK Clean Energy Forum was held at the Marriott Marquis Hotel in Washington, D.C., on June 25 as a part of both nations' dedication to accelerating the clean energy transition, expanding clean electricity deployment and building clean energy economies, which the two leaders agreed upon in April last year. About 80 participants from the two governments,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attended the forum.

The thematic sessions covered advanced battery technology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energy storage systems (ESS) to expand clean electricity; clean energy investment and financing; electricity power grid innovation for a reliable, resilient, stable, and affordable system; and commercialization and deployment of clean hydrogen technologies, including mobility, supply chain, and certification. These discussions among government officials and experts from industry, academia, and laboratories illuminated the vast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bilateral cooperation in each of these areas, painting a promising picture for the future of clean energy.

In his congratulatory address, Minister Dukgeun Ahn reiterated the importance of the forum, stating that "We have a valuable opportunity to unlock further potential for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engage in mutual efforts towards a clean energy future while the Korean private sector has responded to the attractive IRA incentives by investing in the United States." He also proposed to "regularize the U.S.-ROK Clean Energy Forum and continue the energy policy dialogue at the Ministerial level. By strengthening our energy cooperation, I am confident that we can achieve energy security and address the climate crisis facing our world together."